

오라.

보라.

들어라.

그리고 전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如來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연 없는 장님들에게 ‘오라.’

볼 수 없는 장님들에게 ‘보라.’

들을 수 없는 장님들에게 ‘들어라.’

말할 수 없는 장님들에게 ‘전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없던 것을 신에게 기원하기를 즐겨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다른 사람은 갖고 있는데 자신에게는 없는 것을.

좋은 운명, 원하는 운명을.

좋은 삶, 원하는 삶을.

좋은 미래, 원하는 미래를.

그래서 세상에 오신 如來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렸습니다.

보라.

있는 것과 있는 일(진실)을 보기 위해 치열(熾烈)하게 노력하라.

먼저 진실을 보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진실이다.

있는 것과 있는 일을 있게 한 일(진리)을 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라.

먼저 진리를 보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진리이다.

들어라.

있는 것과 있는 일(진실)을 듣기 위해 치열(熾烈)하게 노력하라.

먼저 진실을 들어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진실이다.

있는 것과 있는 일을 있게 한 일(진리)을 듣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라.

먼저 진리를 들어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진리이다.

전하라.

나의 진실과 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라.

나의 말을 듣고 본 것과 나의 행동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라.

이것이 내가 여러분을 축복해줄 수 있는 유일(唯一)한 길이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 자신은 똑똑한 것도 싫고 깨달은 것도 싫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다.

나는 내가 한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또 축복받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서는 자랑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은 치욕적인 삶이다.

내 자신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때는 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치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자신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세상에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